가람 알려주는 산속 등대

가람의 장면들 26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갑사의 철당간

지금이야 전국의 사찰에 이르는 길이 잘 닦여있고, 안내판도 발달해서 웬만한 사찰을 찾는데 길을 잃을 염려가 없다. 그러나 근대 이전만 해도, 대부분의 산중 가람은 험준한 산악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 싸여 있었고, 사찰에 이르는 갈이라야 숲 속에 난 오솔길 정도였다. 무엇인가 가람의 위치를 나타내어 신도들이 손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기념물(landmark)이 필요했다. 흔히 이름난 고찰 입구에 서 있는 당간지주들이 바로 그런 이정표였다.

당간지주란 당간을 세우기 위한 지지대를 말한다. 당간이란 당(幢)을 걸기 위한 게양대였다. 삼국시대 고승이었던 자장율사가 선덕여왕의 부름을 받고 당나라에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불교 용구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가운데 당과 번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幢)이란 가로로 기다란 깃발을 말하며, 번(幡)이란 세로로 긴 깃발을 말한다. 지금도 다비식에서 볼 수 있는 만장은 바로 당의 일종이며, 태극기와 같은 대부분의 깃발들은 번의 일종이다.

당과 번은 각종 불교행사에 사용되었던 장엄물이었고, 전쟁터에서도 군사용 당과 번이 사용되었다. 당간과 당간지주는 후대 가람에서 등장하는 것 같이 단지 이정표의 역할만 한 것은 아니었다. 미륵사지와 같이 삼국시대 도시 안에 조성된 광역사찰에서도 절 입구에 당을 달았는데, 이는 사찰의 위치를 표시하기보다 가람의 경계를 표시하며, 성스러운 장소로 들어가는 입구의 의미가 더욱 강했다. 그러나 산지 가람에서는 절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더 큰 효용이 있었다. 위아래로 긴 당을 걸기 위해서는 깃대, 즉 당간의 높이가 높아야했고, 숲 속에 우뚝 솟은 당간과 거기에 휘날리는 당을 보고 달리서도 길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신도 길 쉽게 찾도록
절 입구 세운 쇠기둥
당걸고 경계 표시도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당간들은 거의 없다. 당간은 나무나 돌로 만든 경우도 있었지만, 사찰에는 주로 철로 만들었던 것 같다. 나무 당간들은 썩거나 부러져서 남아있을 확률이 전혀 없고, 돌 당간은 높이 만들기 어려웠기 때문에 솟대와 같은 민간신앙용으로 마을 주변에 세워졌는데, 그나마 보존된 것은 나주 정도에 있을 뿐이다. 철당간은 민간에서 녹여서 쓰기도 했고, 특히 일제기 철물 공출시에 대부분 사찰의 철당간들이 공출당하고 말았다. 현존하는 것들은 청주 용두사지, 갑사 대적전 앞의 철당간, 그리고 법주사의 것 정도가 손꼽힌다. 그나마 온전한 형태가 아니라 당간 머리가 잘린 불구의 모습이다.

당간의 온전한 형태는 호암미술관에 소장된 고려시대 금동당간에서 볼 수 있다. 비록 실내용으로 제작되어 축소된 모습이지만, 수십개의 원통을 이어 붙여서 몸통을 만들고, 머리 부분에는 용머리를 조각하여 장식한 것으로, 당간의 일반적 형식이라 추측된다. 당간을 세우려면, 든든한 당간지주가 우선 세워져야 한다. 당간지주는 한쌍의 통돌을 높이 세우는데, 기초를 든든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십미터에 달하는 당간의 상부에는 항상 바람이 불고, 펄럭이는 당은 당간에 일정한 진동을 주게된다. 당간지주가 웬만큼 튼튼하게 땅 속에 박혀 있지 않으면, 이 지속적인 진동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만다.

◇통일신라시대 작품인 갑사의 철당간(15m) 지주(3m). 보물 제256호.

땅 속에 단단히 박혀있는 한쌍의 당간지주에는 아래 위 두 개의 구멍이 뚫려있는데, 당간지주 사이에 당간을 세우고, 구멍에는 가로대를 질러서 당간을 붙잡아 맨다. 흔히 법당 앞에도 이런 모양의 돌이 서 있는데, 이는 당간지주가 아니라 괘불대 지주다. 사찰의 중요한 재일 때 거대한 괘불을 걸쳐서 달기 위한 시설이다. 당간지주와 괘불대의 차이는 분명하다. 괘불대는 우선 크기가 작고, 한쌍이 아니라 두쌍의 돌이 좌우로 나란히 세워진다. 그래야만 괘불을 양쪽에서 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괘불대는 법당 앞 마당에 세워지고 당간은 절의 입구에 세워진다.

계룡산 갑사는 두 개의 가람으로 이루어졌다. 본영역은 대웅전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남쪽으로 개울을 건너면 숲 속에 다소곳이 조성된 대적전 영역이 나타난다. 본영역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대적전 역시 작은 건물이다. 그러나 대적전 앞에는 오래된 석등과 철당간이 서 있어서, 본 영역보다 오히려 먼저 만들어진 곳임을 알 수 있다. 알려진 대로 갑사는 신라 때 유명한 화엄십찰의 하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다지 큰 규모가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이 대적전 자리에 기틀을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후대에 와서야 대웅전이 있는 개울 건너로 확장되어 지금의 모습을 이루었을 것이다.

기적적으로 남아있는 갑사의 철당간은 깊은 산 속에 작은 가람이 그 존재를 알리기 위한 표적이었다. 마치 망망 대해에 작은 빛을 발하는 등대와 같이, 비록 그 크기는 작지만, 숲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에게는 한줄기 광명이었고 부처님의 은덕이었을 것이다.

불교 NGO 힘, 수행서 나온다

정토회·재가연대 등 명상체조·참선
자신 돌아보는 계기…업무능률 향상도

불교NGO 간사들을 중심으로 수행 바람이 불고 있다. 불교의 대사회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들은 업무 틈틈이 참선, 절하기, 명상 등 '생활 속의 수행'으로 정진력을 향상시켜 불교시민운동의 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월례 수련회, 100일기도, 일꾼 수련회 등을 개최해 타 단체들의 수행 모범이 되고 있다.

실천하는 불교일꾼

'일과 수행의 통일'을 지향하는 정토회를 비롯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근본도량을 중심으로 정기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는 '수행모임'을 꾸려 '생활 속의 수행'을 통해 자신과 일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고 있다.

정토회 산하의 환경교육전문 NGO인 불교환경교육원을 비롯 국제 기아·질병·문맹퇴치 민간기구인 JTS, 극제평화인권난민지원센터인 '좋은벗들' 소속 60여 간사들은 저마다 불교사상에 투철한 '실무형 행자(行者)'임을 자처한다. 특히 88년 창립된 정토회의 성공비결은 '수행자의 생활을 접목한 실무 간사 교육'이라고 알려질 정도다.

신입 실무자들은 100일간 정토회관에서 대중생활을 하며 '일과 수행의 통일', '어떻게 살 것인가' 등을 주제로 한 사상 교육을 거쳐 '정토회 간사단은 붐법(佛法)을 실천하는 수행공동체'임을 자임하게 된다.

매일 오전 5시에 시작되는 간사들의 대중생활은 수습기간 동안 새벽예불과 1000배 정진, 참선 등이 매일 반복되며, 2박 3일간의 집중수련도 실시된다. 30년간의 인생 계획을 새롭게 보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하면서 실천할 서원을 세우도록 유도하고 있다.

성지순례·철야정진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공동대표 박광서) 간사들은 매일 점심시간에 '우리 몸 안에 눈뜨기'를 주제로 명상체조를 30분씩 하고 있다. 소화를 촉진해 변비를 예방하고 춘곤증을 미연에 방지해 업무능률의 향상은 물론 바쁜 일상에서 오는 각종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소멸해 주는 효과가 있단다.

재가연대 교육신행위원회(위원장 류종민)는 5월부터 '명상체조' 등이 좋은 반응을 얻자 김종서 박사(전 교육개혁위원장), 한정섭 법사(한국불교공간선원 이사장), 류종민 교수(중앙대, 금강경독송회 법사), 김열권법사(위빠사나호흡명상원) 등 재가 수행전문가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초청, 생활수행 방법, 효과, 교훈 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수행모임'(예상인원 15~25명)을 갖기로 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와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는 근본도량인 남원 실상사와 파주 보광사에서 각각 월례 수련회 등을 개최해 신심을 다지고 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지난 5일부터 5월3일까지 매일 아침 조계사에서 간사들의 정진력을 고취하기 위한 100일 기도를 하고 있다. 또 매달 한 번 1박 2일간 근본도량인 실상사를 비롯한 사찰에서 '일꾼 수련회'를 개최한다.

파주 보광사를 근본도량으로 삼아 출·재가의 상보적인 불교운동의 전형을 보여 온 실천승가회는 실무자들이 매달 수시로 보광사에서 모여 철야정진, 토론회 등으로 불교운동의 좌표와 이념을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

재가연대 윤남진 기획실장은 "불교이념에 투철한 불교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안정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꾸준한 수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지난 3월1일 입제식을 가진 21개 단체로 구성된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1000일 정진 불교연대'의 출범은 불교단체의 '수행 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정토법당에서 정진하는 통일정진불교연대 회원들.

청년자원봉사 '국제워크캠프' 7월3일~12일 인도서 열려

200여명 참가…위생·시설 보수등 활동

한국 인도 대만 태국 네팔 등의 청년 봉자들이 함께 하는 자원봉사 활동인 '제2차 국제 워크 캠프'가 JTS(이사장 법륜스님) 주관으로 7월 3~12일 9박10일간 인도 보드가야 둥게스와리 지역에서 열린다.

'노동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한다'는 주제로 JTS 이사장 법륜스님과 스리랑카 사르보다야 운동의 창시자인 아리야라트네 박사의 지도로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아시아, 미주 지역의 청년 불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각 나라의 청년불자들은 JTS가 수자타아카데미를 운용하고 있는 둥게스와리 인근 지역에서 △우물가 위생시설 확보 및 청소 △집짓기 및 각종 시설 보수공사 △망고나무 심기 △지붕 및 벽 수리 등의 봉사 활동을 펼친다.

한편 JTS는 매년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6개월간 인도 보드가야 둥게스와리 수자타아카데미에서 활동할 장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또 청년정토회는 7월25일~8월15일 20일간 수자타아카데미에서 봉사할 단기 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

국제 워크캠프 참가 희망자는 5월 31일까지 JTS(www.jungto.org)에 접수해야 한다. (02)587-8995

김재경 기자

연꽃일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찬덕의 연잎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특허 제 122168호 찬덕 비단 연잎으로
사찰에서 완성되는 공단등을 보급합니다.

연등 전문 제조업체인 찬덕 연등에서 스님들께
과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공단등 연잎으로 신도들의
불심을 모아 연등 불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펼쳐 드립니다.

〈납품형태〉 ■ 비단 연잎 ■ 등통 + 비단 연잎
■ 완성비단연등(법당용) 빨강·노랑·연분홍

팔모주름등 (핑크)

■ 공단(비단) 연잎등 완성과정

⊙ 팔모주름등 특징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아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 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디자인 대구여래기획
(053)426-3395~6

찬덕 연등제작사
대표 김 기 찬 합장
☎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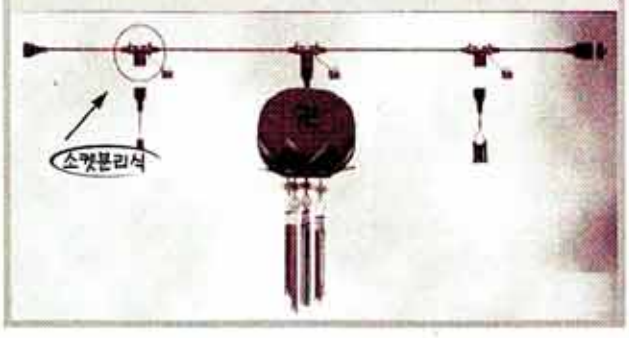
불자 기업에서 제작하는 불제전선(케이블)
봉축행사 사찰연등 법당기도등용 불제 T형 전선(케이블)

사용용도
사찰연등용 · 옥외행사용

규 격
-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주문
- 모델 : DW-101, DW-100F (고리형)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 확보
- KS전선사용
- 감전,화재사고를 예방
- 설치·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시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

불제 연등용 전선(케이블)



전등배선
- 일일이 피복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 이런 사소한 배선에서도 단선, 누전, 합선, 단락, 과열 등에 의해 감전사고나 화재사고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 전기는 소리도, 냄새도, 보이지도 않고, 예고도 없습니다.
- 단지 충분한 지식의 이해와 점검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입 본사 영업부
문의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080-5826-236
A/S : (032)583-4023
FAX : (032)571-9470

㈜ 대원기업

사찰용, 연등용 전구 3W~5W도 납품합니다.
(고추전구, 인지전구)
■ 인터넷: http//:www.bulje.co.kr

사찰 전기화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시다. 4·8 봉축 이전에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